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18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84.40원 (+15.80원)

KOSPI

6,715.41 (-2.56, -0.04%)

KOSDAQ

822.18 (+6.20, +0.76%)

국고채 10년 금리

4.506(-0.046%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하나채권 [9월 FOMC] 일회성 조정이 아닌 인상 '사이클' [박준우]

기업분석

아이씨티케이 AI가 발전할수록 ICTK의 PUF가 필요합니다 [이상훈, 김홍식]

엔에프씨 거침없는 ODM 사업 확장 [박종대]

산업분석

보험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개편 [고연수]

Weekly

통신 가진 자가 점차 유리한 게임으로 [김홍식]

유틸리티 서희가 있었다면 [유재선]

제약/바이오 하반기 주요 학회 시작, 그리고 실적에 집중할 때 [김선아]

글로벌리서치

CATL 주가 약세 코멘트 [송예지]

단기투자유망종목

HD현대중공업,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 오리온, DL이앤씨, 대한해운,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텔리안테크

하나증권

2026년 9월 18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채권

[9월 FOMC] 일회성 조정이 아닌 인상 '사이클'

- 만장일치 인상. 점도표는 내년까지 4.25% 제시. 시장은 긴축 '사이클'의 시작으로 인식
- 균형 이하 실업률 및 근원물가 오름세 전망. 완화적 금융환경을 긴축으로 전환할 필요
- 올해 12월, 내년 3월 추가 인상 전망(최종 4.50%). 미국 10년 적정 4.95%. 다만 인상 '사이클'임을 고려할 때, 레벨보다 긴축 추세에 집중하여 투자의견 '축소'

여전히 부족한 긴축 강도. 최종 기준금리 4.50% 전망

총평: 만장일치 인상과 점도표 상향 등 매파적 인상이었다. 특히 점도표는 연내 2회 인상 뒤 내년 인하보다 추가 인상 리스크를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일회성이 아닌 인상 '사이클'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견조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추세에 비해 긴축 강도가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12월과 내년 3월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최종 4.50%). 인상 '사이클'이라면 국채 금리는 당분간 하방보다 상방 리스크가 크다. 미 국채 투자의견을 '축소'로 변경한다.

[기준금리 및 성명서]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다. 2025년 12월 인하 이후 9개월만에 인상으로 전환했다. 성명서는 '강한 성장 및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7월 평가를 유지하면서 내수의 견조함을 추가로 강조했다 [도표 9].

→ 7월에 소수의견이 3명이 등장하면서 내부 이견이 컸고, 에너지/관세/AI 충격으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만장일치 인상은 의외였다. 연준이 인상을 결정한 핵심 근거는 성장과 물가 추세가 겹치나, '시장의 프라이싱에 반하는 결정(동결)을 내릴 경우 장기금리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망 및 점도표] 올해와 내년 성장을 전망을 6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하고 실업률은 4.1%로 낮췄다 [도표 2]. 2027년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2.5%로 안정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점도표는 올해와 내년 중앙값이 모두 4.13%(상단 4.25%)였다 [도표 1]. 특히 2027년은 4.38%(상단 4.50%)를 제시한 위원도 8명에 달했고, Longer-run 전망도 3.2%대로 상향됐다.

→ 잠재 이상의 성장률에 이어 균형(4.2%) 이하의 실업률을 전망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제 전망이다. 점도표를 통해 연내 2회 인상 후 내년에 인하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 폭이 더 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채권의 예상보다 긴축적인 점도표였으며, 시장은 이를 일회성 조정이 아닌 긴축 '사이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보다 금융시장과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2026년 09월 1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60,000원
현재주가(9.17) 20,5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2.18
52주 최고/최저(원)	36,350/11,090
시가총액(십억원)	297.3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14,502.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65.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1
외국인지분율(%)	1.30
주요주주 지분율(%)	
이정원 외 17 인	26.4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8	25.3
영업이익(십억원)	(2.0)	8.4
순이익(십억원)	0.1	7.3
EPS(원)	7	503
BPS(원)	3,048	3,551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6.7	4.0	6.5	16.9
영업이익	(6.7)	(8.9)	(7.3)	0.2
세전이익	(5.8)	(6.7)	(15.9)	1.0
순이익	(5.8)	(6.7)	(15.5)	0.8
EPS	(467)	(499)	(1,085)	54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20.99)	(33.13)	(17.07)	342.96
PBR	3.02	5.23	5.92	5.82
EV/EBITDA	(18.32)	(27.99)	(44.54)	150.57
ROE	(22.20)	(15.36)	(34.67)	1.72
BPS	3,240	3,161	3,129	3,183
DPS	0	0	0	0



Analyst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아이씨티케이 (456010)**AI가 발전할수록 ICTK의 PUF가 필요합니다****ICTK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0,000원 유지**

ICTK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최근 사이버보안이 AI의 향후 활용처로 주목받음에 따라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가 각광받고 있으며, 2) 글로벌 빅테크와 보안칩과 EU 배터리 여권법 기반 배터리와 보안칩 덕분에 점진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3) 작년 5월 타법인 증권취득 목적으로 발행한 CB를 출처로 M&A를 전개할 경우 빠른 시일내 외연확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AI 위협으로 보안주 상승했다면 양자암호주는 더 크게 상승해야 합니다

9/10일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사이버보안이 AI의 다음 주요 활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글로벌 보안주 주가가 연일 상승 중이다. 이전 자료에서 2000년대 인터넷 혁명 당시 사이버보안이 발전한 덕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사례를 예시로 들며 AI와 보안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는데, 결국 창이 발전하면 방패도 같이 발전해야 산업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안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보안주 주가가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양자암호주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특히 양자암호 중에서도 PQC와 같은 SW 기반 암호보단 물리적인 보안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시장에선 양자암호를 단순히 양자컴퓨터 발전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자든 AI든 연산성능을 고도화·가속화하는건 마찬가지여서 암호 알고리즘 붕괴 위험은 동일하다. PQC 역시 AI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으면 무력화된다고 보면 알고리즘 해독과는 무관한 물리적 방어 수단인 QKD와 PUF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양자암호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로 인한 보안 위협은 현재 LLM발 보안 위협을 아득히 능가하겠다. 단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휴머노이드/자율주행 차량이 테러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로봇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외부와의 트래픽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입력된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폐쇄형 로봇이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피지컬 AI는 서버/사용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있다. 특히 로봇의 판단수준이 고도화될수록 해킹 가능성은 커진다. 트래픽 경로가 길어질수록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는 경로도 많아진다고 보면 그렇다. 완전한 피지컬 AI라면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며, 행동 범위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이런 수준의 월드 모델은 막대한 연산/기억 자원이 필요해서 단말 내부의 로컬 자원으로 한계가 있을테고, 반드시 코어 서버에 연결되어야 한다. 엣지컴퓨팅이 발전하더라도 모델의 발전에 따른 용량 비대화를 감당하려면 결국 집적화된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즉, 코어→통신망→단말로 이어지는 각 구간마다 알고리즘으로 파훼할 수 없는 물리적인 방어벽이 필요한데, 통신망에선 QKD가 방어벽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단말에선 PUF가 탑재되는 구조이다. 로봇 단말마다 PUF칩이 탑재된다고 가정하면 가장 보안성이 우수한 VIA PUF칩을 자체 개발한 ICTK에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Not Rated

현재주가(9.17)

6,3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22.18
52주 최고/최저(원)	9,400/4,125
시가총액(십억원)	113.4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7,863.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24.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2
외국인지분율(%)	3.14
주요주주 지분율(%)	
유우명 외 3인	50.6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9	123
영업이익(십억원)	18	22
순이익(십억원)	15	19
EPS(원)	826	1,036
BPS(원)	4,417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1	43	40	72
영업이익	2	4	(7)	13
세전이익	2	4	(7)	12
순이익	2	4	(5)	10
EPS	105	206	(293)	563
증감율	64.1	96.2	적전	흑전
PER	41.7	21.4	(7.8)	7.5
PBR	1.4	1.3	0.7	1.2
EV/EBITDA	20.1	15.4	0.0	5.6
ROE	3.3	6.0	(9.5)	15.4
BPS	3,206	3,404	3,092	3,660
DPS	20	40	0	6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2026년 09월 18일 | 기업분석

엔에프씨 (265740)**거침없는 ODM 사업 확장****3분기 영업이익 48억원(YoY 63%) 추정**

3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7%, 63% 성장한 268억원과 48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재와 ODM 사업이 모두 견조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ODM 사업의 경우 주요 톱 5고객사(매출 비중 10% 이상)로 1개 기업이 추가되었다. 5개사 매출 비중은 80%이다. 전년도 상반기 톱4 고객사 매출 비중이 9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 SKU도 확장되고 있다. 소재 부문도 YoY 50% 고신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톱 ODM사로부터 수주가 많이 늘었고, 대형 브랜드 L사 매출 비중은 30% 이하로 하락했다. 세라마이드는 물론 신규 소재 매출도 좋다. 특히, 락토PDRN 같은 고기능성 신소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락토PDRN 첫 제품이 나왔는데, 반응이 긍정적이다. 새로운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내 ODM 시장 호황으로 세라마이드/유화제/보습제 등 주요 상품군이 고른 성장세다. 참고로 소재에서는 세라마이드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40%, 유화제가 10~15%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R&D 역량 기반 ODM 사업 확장세 지속

엔에프씨는 원료/소재 분야 높은 R&D 역량을 기반으로 ODM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사업 규모가 크게 레벨업하고 있다. 특히, 국내 톱3 ODM사가 풀캐파로 올해 추가 수주가 어려워지면서 하위 업체로 낙수 효과가 커지고 있다. 엔에프씨 역시 새로운 고객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미 두어개 고객사는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다. 엔에프씨는 원료/소재 사업에서 국내외 높은 인지도를 형성해 놓은 상태이고, 높은 기술 수준으로 서비스 범위와 연속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중소형 인디 브랜드 업체들의 합리적 ODM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주가 12MF PER 5.9배 불과

K뷰티 글로벌 모멘텀과 함께 국내 ODM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납기 지연을 걱정하고 있으며, 2027년 캐파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술력과 충분한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ODM 업체를 찾기 쉽지 않다. 엔에프씨의 ODM 사업은 2025년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2026년 메이저 고객사들의 글로벌 판매 지역 및 SKU 확대로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규 고객사가 더해지면서 2027년 성장 폭 역시 30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가시성은 낮지 않다. 반면 현재 주가는 12MF PER 5.9배에 불과하다.

가진 자가 점차 유리한 게임으로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 2026.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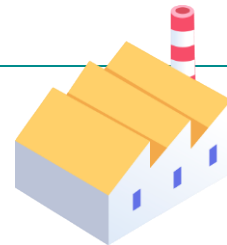
Analyst 김홍식_pro11@hanafn.com

RA 이상훈_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연말로 다가갈수록 무선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급 개선이 예상된다. 매도보다 매수세가 우세해지는 현상이 뚜렷해 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과거 경험상 주파수 경매 직후 통신사 장비 발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신규 고주파수의 경우엔 투자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는 학습 효과가 크다. 그런데 미국 4.0GHz 대역 경매가 2027년 4월로 이미 확정되었으며 타국 대비 적은 5G 주파수 논란으로 2027년 3.7GHz 대역 국내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통신장비주를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보유 욕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매수 우위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 무선통신장비 업체들의 경우엔 아직까지 비수기인 상황에서 실적이 2025년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양상이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어쩌 C밴드 주파수 경매가 예정된 2027년 2분기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8월 이후 무선통신장비가 반등을 시도 중이다. 당연히 2027년 실적 호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먼저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적에 대한 주가 선반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장비주에 대한 투자가 위험해지는 시점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때이다. 그런데 아직은 실적 호전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니 아직은 한참 더 오를 소지가 크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주를 이룰 것이다. 최근 KOSPI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 개별 종목 장세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통신장비주 상승이 나타난다면 수급적인 이점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 뜬금없이 AI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 중이다. 과거 일부 인터넷 업체의 사례를 감안하면 노이즈마케팅 성격이 강한데 일부 IPO를 앞둔 업체들이 본인들의 AI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AI 모델의 유료화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AI 유료 가입자 현황 및 통신사들의 AI 과금 현황을 보면 여지없이 드러난다. AI의 위협을 걱정할 정도로 현재 AI의 수준이 높다면 AI 업체들의 편당을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AI 실체를 입증하기 위해 피지컬 AI를 굳이 끌어들이는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글로벌 국가/기구간 협의도 없이 경쟁력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AI 속도 조절론에 동참할 업체가 몇 군데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바로 답은 나온다. AI는 아직도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성장산업이며 피지컬 AI를 통해 비로소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란 판단이다.
- 9월 미국 FCC가 중국 광 부품 업체들을 규제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와는 다른 판단인데 일부 통신 및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부에선 본 이슈가 미국/국내 광통신업체들에게 악재가 아니냐고 언급한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미국 루멘텀/코히런트와 같은 광통신업체들은 물론 RF머트리얼즈와 같은 국내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투자가 입장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본 원인은 광 부품 공급 부족 현상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광 부품 부족 사태를 잘 알려주는 사례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T를 최선호하지만 KT와 LGU+ 역시 현 주가에선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통신장비주 중에선 미국/국내 주파수 경매 관련주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한다. RFHIC/KMMW/HFR/LIG아큐버/솔리드/오이솔루션이 대표 수혜주이다.



서희가 있었다면

유틸리티 Weekly | 2026.09.18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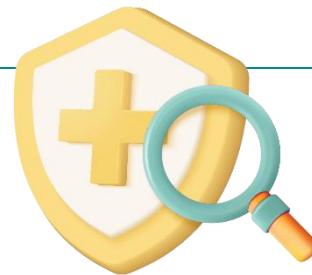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1% 하회했다. 16일 종가 기준 WTI 103.6달러/배럴(WoW +2.8%), 미국 천연가스 2.9달러/mmbtu(+2.8%), 아시아 LNG 현물 27.2달러/mmbtu(+10.3%), 호주산 유연탄 144.8달러/톤(-1.8%), 원/달러 환율 1,377.3원(+2.8%)을 기록했다. JKM이 20달러 후반대로 상승했다. 겨울철 국내 가스 가격 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 대미 투자 2호 안건으로 언급되는 대형 원전 8기 프로젝트에서 APR1400 2기 확보를 추진 중인 상황은 긍정적이지만 낙관적인 결과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적자에 대응하는 수익, 일자리, 공급망 등이다. 만약 한국형 원전으로 2기가 확정되더라도 이후 후속 프로젝트까지 수주가 이어질 가시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시장 눈높이가 2기를 넘어 8기 또는 이상을 바라본다면 기대감을 일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 수출이 성사된다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시공 리스크 책임 배분, 수익성 또는 PPA 보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리스크만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SMP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LNG 연료비단가는 9월 수치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전월대비 9% 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kW당 170원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별 SMP는 9월 초 평일 기준 160원/kWh를 상회한 이후 100원/kWh 초반으로 하락했다. LNG 연료비단가보다 월별 SMP가 낮게 형성되는 편이지만 이번 9월은 격차가 유의미하게 큰 상황이다. 기온이 하락하며 전력수요 비수기에 진입한 가운데 공급능력은 100GW 내외로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정비 일정 변화 등 큰 요인이 없다면 9월 평균 SMP는 kWh당 120~130원대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 한편 7~9월은 태양광 기여도가 높지만 점차 겨울철에 진입하면서 실효용량이 감소하고 전력 기반 난방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9월 나타난 비용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된 전기요금 선납은 없었던 일이 되는 모습이다. 사채발행한도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자금조달 통로였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한전채 발행은 영업실적 감소폭에 비례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12차 전기본에서 파생되는 송변전 계획의 투자규모가 11차 계획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 조달 규모도 늘어날 것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전력의 투자비를 확보할 방법은 없다.
- 언론에 따르면 LNG 용량시장이 1.3GW 규모로 개설될 전망이다. 12차 전기본 발표를 앞둔 현재 구체적인 개설 일정은 미확정인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시설 확보, 첨단산업 관련 산업단지 수요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모잠비크 Rovuma LNG 프로젝트의 FID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Area 4 보유 지분은 10%이며 모잠비크 Coral North FLNG에 이어 Rovuma LNG까지 가동될 경우 지분 물량이 현재 106만톤 가량에서 2031년 388만톤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2027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개설하는 발전원별 계약시장 경쟁입찰에 선정되어야 한다. 상한가격이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대가 민간 수요 기반 PPA보다 낮다면 발전사업자의 수요는 민간 시장에 집중될 전망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6) 가격은 17일 종가 기준 30,550원으로 전주대비 0.3% 상승, YTD 193.8%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3분기 실적은 9월 SMP 감안하면 시장 눈높이 상회 가능성. 4분기부터는 비용 증가 영향 본격화
- SK가스: 옵셔널리티 시행 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PG 단가는 LNG 대비 경쟁력 충분할 것으로 추정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9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9월 18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하반기 주요 학회 시작, 그리고 실적에 집중할 때

1) 2026년 9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점검

- **World-ADC, ESMO 등 10월 주요 학회** 바이오텍의 하반기 주요 실적 발표로도 볼 수 있는 학회 시즌이 도래하였다. WCLC(세계폐암학회)가 9/15일자로 종료되었고, 주목할 이벤트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ESMO(유럽종양학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Late-Breaking Abstract 관련하여 개최지인 마드리드 현지 시간 기준으로 9/16~18 사이 각 주요 저자 또는 제출 기업에 최종 수령 통지가 있을 예정이고, 채택된 기업은 곧 공지나 참석 관련 기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 데이터 발표가 없었던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참석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으로는 알지노믹스(교모세포종), 온코닉테라퓨틱스(채장암 P1b full data, 또는 난소암 등 추가 고형암 P2 중간 결과), 지아이이노베이션(GI-102 SC, 102+키트루다 병용 등) 등이 있다 (참석이 기사 등으로 확인된 기업은 [도표. 17]을 참고). 이번 ESMO에 Merck/Moderna와 BioNTech/Roche의 항암백신 데이터 발표가 있다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종목들을 함께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9/15일자 Biweekly 참고). 이후에도 11월 AASLD(미국간학회), Obesity Week(비만학회), 12월 AES(미국내전중학회), ASH(미국혈액학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2개월 전부터 참석 예정인 기업이 주목 받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일정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실적은 믿음직한 재료** 9월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의 25bp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 사이클로 본다면 4Q까지 금리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9/17일자 박준우 위원의 "[9월 FOMC] 일회성 조정이 아닌 인상 '사이클' 리포트 참고). 최근 알테오젠이 Novartis와 약 \$3.2B 규모의 계약을 하였으나, 주요 후보군인 Del-desiran 임상3상 실패와 함께 시장이 철저하게 현금 유입 시점을 추정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비만치료제 HM17321을 Genentech에 \$2.3B 규모, 선금금 약 2,600억원을 수령하는 기술이전 계약 후 셀온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결국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 것처럼, 전망이 불안정할수록 실적은 믿음직한 재료가 된다. 곧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달러 약세에 의한 컨센서스 변동이 클 예정이니 점검이 필요하고, 4분기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면 실현 가능성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4분기는 글로벌 동향으로 L/O가 가장 많은 때이나 지금은 기대감 만으로 주가가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

2) 2026년 9월 추천 종목 중간 점검

- **9월 코스피 Top pick(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유상증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29년 내 빠르게 발표될 CAPEX의 확대 공시의 예고편이라 판단되어, 단기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천한다. 2) 한미약품은 L/O로 인한 선금금 유입은 물론이고, 에페글레타이드의 국내 판매 허가도 가까워졌다. 또한 3분기에 중국에서 코로나 양성 진단을 20%를 돌파하여 북경한미도 QoQ로는 분명한 실적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Top pick인 SK바이오팜은 FDA의 우려를 해소하고 부분 임상 중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이 주가 회복에 중요하다(11월 추정).
- **9월 코스닥 Top pick(변경): 알테오젠, 올릭스** 1) 알테오젠은 서프라이즈한 3Q26 실적을 보여줄 예정이다. Qlex는 8월에도 Integrated WAC 기준 지난 달 대비 약2% 더 성장했다. 올해 총 sales milestone과 4Q까지 기존 파트너사들의 개발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 등을 고려하면 '26년 영업이익은 3천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2) 올릭스도 9/15일 약 160만주의 CPS 전환물량이 상장했음에도 견조한 주가를 보이고 있다. 오버행 이슈를 상쇄할 여러 이벤트가 있지만, 탈모 치료제는 2a상에서 국가 및 환자 수 확장한 만큼 1b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고 4분기 내 공개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기존 Top pick인 리가캠바이오는 서브라이선스로 하반기 내 추가 L/O 가능성 높은 분위기이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유지하나, 최근 주가 동향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배제하였다.

2026년 9월 17일 | Global Equity

CATL(3750.HK)

주가 약세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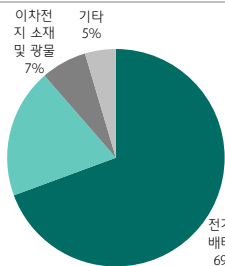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793.14 HKD
CP(9.16) 501.00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 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catl.com
시가총액(십억HKD)	109
시가총액(조원)	19.2
52주최고/최저(HKD)	779.5/465.0
주요주주 지분율(%)	
YUQUN ZENG	22.19
HongKong Exchanges and Clearing	12.0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3.2) (25.2) 5.0
상대	(20.3) (20.9) 11.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62,013	423,702	619,400	757,641
영업이익	55,932	73,608	113,383	142,035
순이익	50,745	72,201	95,818	119,099
EPS(CNY)	11.6	16.1	20.7	25.9
EPS(YoY, %)	(1.8)	39.4	28.6	25.1
ROE(%)	22.8	24.7	25.8	26.6
PER(배)	23.0	22.8	24.2	14.8
PBR(배)	4.7	5.0	6.2	5.3
배당률(%)	2.2	2.2	1.9	2.2

자료: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A/H주 주가 이틀간 9% 급락

CATL 주가가 9월 이후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다. A/H주 주가는 9/15~16 이틀간 9% 하락했으며, 최근 고점 대비로는 각각 36%/34% 하락했다. 최근 주가 부진은 1)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2) 중국 정부의 신규 배터리 증설 규제 강화, 3) 9월 생산량 감소 루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다변화, 신규 ESS 배터리 증설 규제가 원인

완성차: 최근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처를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다. 샤오미는 9월 CALB 및 Sunwoda와 자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했고, 신형 Sky Nomad 라인업에는 CALB/Sunwoda 배터리가 탑재되며 CATL은 공급 업체에서 제외됐다. 9/7 리오토 역시 자체 개발 배터리를 하반기부터 전 차종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신형 Li Mega도 기존 CATL 배터리에서 자체 개발 배터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공급업체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CATL의 고객 기반은 이미 다변화되어있고 샤오미/리오토가 전체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한 자리 수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CATL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이 CATL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해왔음에도 CATL의 중국 동력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8월 41%(2위 21%)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규제:** 9/7 중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과 과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ESS 배터리 프로젝트 건설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증설 제한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가동률(1H26 95%)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CATL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한다. **생산량:** CATL의 9월 생산량이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통상 9월은 성수기로 생산량이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감소 가능성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는 동박 등 일부 원재료의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일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량 감소가 최종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 이슈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

중장기적으로 현재 거론되는 이슈들이 CATL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 발표한 200~400억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따라 추가 매입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중공업 (329180.KS)	9/14	479,000	469,500	-1.98%	- 고선가 선박의 매출 인식 확대와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 조선·엔진 부문 수익성 상승 - 상선 중심의 기존 사업에 더해 합정·방산, 발전엔진·원전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14	545,000	539,000	-1.10%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K이노베이션 (096770.KS)	9/14	144,800	139,400	-3.73%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한화생명 (088350.KS)	9/14	5,990	6,010	0.33%	- 중장기급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오리온 (271560.KS)	9/14	119,300	113,500	-4.86%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DL이앤씨 (375500.KS)	9/14	85,800	84,000	-2.10%	- 주택 부문의 높은 마진과 원가율 개선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성 지속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약 2조원·플랜트 약 2.5조원의 수주 파이프라인 기대
대한해운 (005880.KS)	9/14	2,090	2,060	-1.44%	- 포스코·한국가스공사 등과의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 기대 - 재무구조 개선과 3,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추가 장기계약 수주 여력 충분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6,900	6.31%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14	48,800	53,400	9.43%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터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텔리안테크 (189300.KQ)	9/14	63,400	69,300	9.31%	- 저궤도 위성 안테나-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가속화 - 북미 공장 가동과 글로벌 Top-Tier 고객사향 게이트웨이 공급 확대가 추가 성장동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9%	+3.87%p	+77.36%	+17.3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S건설 (006360.KS)	9/14	38,500	36,600	-4.94%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6,900	6.31%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745,000	5.95%	•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52,200	2.01%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72,000	0.37%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97,000	0.00%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에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39,000	17.43%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880	-2.65%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30,000	16.4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78,100	9.69%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9,200	-2.82%	•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88,000	15.10%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77%	+0.95%p	+40.45%	-19.5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910	-8.0%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8,915	31.6%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700	1.5%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735	-19.2%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20,165	-1.7%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3,705	-8.5%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8,155	-14.8%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45	-7.4%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3.38	10.8%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4.70	-3.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5.10	-3.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101.00	8.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42.11	66.2%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인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2.84	-6.3%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2.77	-5.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4.03	-1.4%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증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증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증가) 기준

주2) 전일증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증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증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증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증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일본 7월 설비가동률 (0.5%, 이전치 4.1%)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3.9%, 이전치 4.1%)	-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42.4%, 이전치 49.1%) -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15.6%, 이전치 18.7%) - 중국 8월 소매판매 (0.4%, 이전치 0.6%)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5.2%, 이전치 4.5%)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34.7, 이전치 31.4)	-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3.7%, 이전치 9.7%) - 미국 8월 소매판매 (1.2%, 이전치 -0.6%)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32, 이전치 35)	- 미국 9월 기준 금리 (4.00%, 이전치 3.75%) - 유로존 8월 CPI (E 3.3%, 이전치 3.3%) - 영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6.9%, 이전치 -12.4%) -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0.0%, 이전치 -2.3%)	-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 일본 9월 기준 금리 (E 1.25%, 이전치 1.0%) - 일본 8월 CPI (E 2.0%, 이전치 1.9%)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 미국 8월 선행지수 (E 0.2%, 이전치 0.2%)	
9.20	9.21	9.22	9.23	9.24	9.25	9.26
	중국 9월 기준금리 (E 3.0%, 이전치 3.0%)	유로존 9월 소비자대지수 (E --, 이전치 -15.5)	- 한국 9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 -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 - 유로존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	- 일본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 - 일본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 -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E --, 이전치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